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4주차 주간동향(5.20.~5.26.)

[2024.5.31.(금), 제768호]

이슈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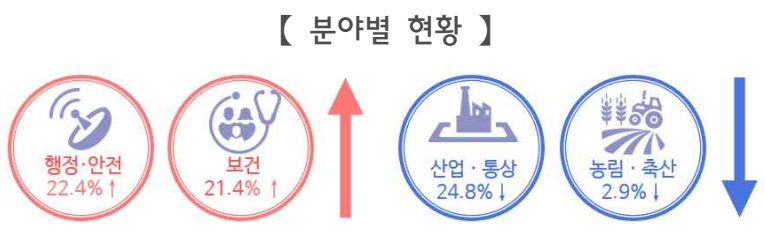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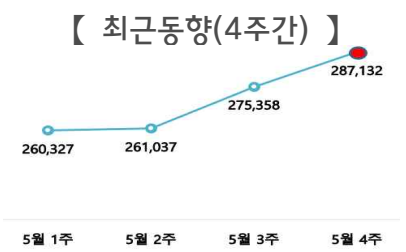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93,170	1	인공지능(AI)(AI 서울 정상회의)	51,708
2	해외직구 규제	1,963	2	일자리(민생물가 TF 첫 회의 예정)	31,224
3	버스차고지(△△시 버스공용차고지 반대)	1,026	3	해외 직구(미인증 해외 직구 규제 철폐)	22,642
4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1,109	4	특검(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20,385
5	안전성 보장(KC인증 관련)	1,029	5	북한(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20,081
6	재개발(□□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1,012	6	신도시(1기 신도시 재건축)	19,817
7	환기구(GTX-C 환기구 설치반대)	770	7	김건희(여사 공개활동)	14,729
8	☆☆시 ☆☆지구(공사 소음 관련)	754	8	의대정원	10,094
9	방역요청(주변 지역 방역요청)	735	9	민생(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8,064
10	경기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폐 요구)	527	10	저출산(2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6,543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5.20.~5.26.)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5.17.~5.23.)

※ 5월 2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아파트 붕괴, 제2경인선 등

민원 동향

- 5월 4주차 민원은 287,132건(일평균 41,018건)으로 지난주(275,358건) 대비 4.3% 증가 ※ 안전신문고(63.8%), 국민신문고(24.5%), 새을 등(11.7%)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구(7.4%), 경북(7.3%)은 증가한 반면, 전남(3.8%), 광주(2.8%) 등 감소
- 분야별로는 KC 인증 관련 민원 등 행정·안전 분야 증가, 제2경인선 착공 민원 등 산업·통상 분야 감소



민원예보(발령)

□ 각종 해충 관련 방역 요청(2024-수시-01호)

2024. 5. 31. | 3단계(심각)

- 최근 잦은 비와 때이른 더위로 전국적으로 각종 해충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혐오감 및 불편감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 요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
 - 동양하루살이 뿐만 아니라 붉은 진드기, 때이른 모기,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한 국민 불편사항 다수 접수
 - 불쾌감 뿐만 아니라 여름철 전염병 매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평년 대비 빠르고 보다 꼼꼼한 방역실시 필요



[최근 급증한 각종 해충에 대한 불편감 및 우려 제기]

- 작년에 비해 올해 2024년에 집안과 밖으로 벌레가 너무 많아져서 방역을 요청드립니다. 개인 방역은 이미 업체에서 진행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유입되는 벌레들이 종류별로 너무 많습니다. (5.24.)
- 기존에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월요일 정도부터 모기가 많아졌어요. 인근에 축사가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모기 서식지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방역하시는거 지나가면서 보긴했는데 바쁘시겠지만 주변 방역 요청 좀 드릴게요. (5.22.)
- 현재 ○○어린이공원 및 인근 주차장에서 초목 및 차량에 붉은 진드기로 의심되는 벌레가 많이 보입니다. 방역요청 드립니다. (5.23.)

[구체적인 해충 피해 및 불편상황 호소]

- 동양하루살이가 올해는 하루에 최소 100마리 이상이 매장 문 앞에 붙고 고객분들의 몸에 붙어 불편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양하루살이는 죽고나서 날개, 다리 등이 가루화 되어 포자처럼 날리는데 해당 부분이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눈이나 피부에 닿아 알러지 유발의 위험이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생각합니다. (5.20.)
- 최근 ◆◆교 밑 지하통로 안에 온갖 수 많은 날벌레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밀폐된 좁은 통로이다 보니 매번 지날때마다 수많은 날벌레들을 뚫고 지나다녀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5.21.)
- 상가 간판을 계속 켜놓아야 하는데 하루살이 외 여러 벌레가 너무 많이 몰려와서 손님이 홀에 앉을 수도 없고 음식에도 벌레가 꼬여서 환불 요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장해서 가는데도 벌레가 붙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23.)
- 저희 가게는 인도에 인접해 있으며, 최근 며칠 진드기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식탁에 떨어져 있으며, 저희 영업장에 새하얗게 내려앉아 꿈틀대고 있어, 특히 식음을 다루는 음식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5.21.)

[선제적 방역 요구]

- 각종 해충 모기 벌레들이 출몰해서 지장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 족구장에 포집기를 설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수시로 모기 해충 벌레 출몰 지역에 가스, 분무, 도포 방역 작업 및 모기 서식지 유충 제거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5.23.)
- ●●공원은 주간 및 야간에도 아이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유충전담반을 배치해 유충 서식지를 중점 관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모기 생태 주기인 2주 이내에 유충과 성충을 동시 방제하면 재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방제해 모기 발생원을 제거시 모기 퇴치에 효과적이라 합니다. 조기 방역실시, 공원 가로등 일대 포충기 설치 부탁드립니다.(5.22.)

[주요 언론 보도]

<p>‘다닥다닥’ 동양하루살이떼 도심 습격...모기도 벌써 등장</p> <p>입력 2024.05.24 (07:43) 수정 2024.05.24 (07:47)</p>  <p>KBS(‘24.5.24.)</p>	<p>콧구멍에 들어가고 얼굴에 달라붙고...한강변 날파리떼 ‘깔따구’ 기승</p> <p>김수현 문화전문기자 입력 : 2024.05.26 10:13 수정 : 2024.05.26 14:08</p>  <p>SBS(‘24.5.26.)</p>
---	---

주요 민원

□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186건)

- 학생 예비군 훈련이 5~6월 사이에 예정·시행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 양상
- 학생 예비군 수업불참 관련, 훈련 변경·연기신청 문의 및 지각자 입소 거부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한 사례 제기

- **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기사화가 되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나서 민원을 넣습니다. 예비군 결석이라는 기사만 검색하더라도 최근까지도 계속 결석 처리한 교수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복무 의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비군을 학생이 가고 싶어서 가나요? 군복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하고 국가에서 나서서 예비군으로 결석 처리한 교수들을 징계하거나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교육부, 병무청 모든 기관이 같이 방법을 논의하여 학생들이 억울한 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소한의 국군장병들에 대한 예우 아닐까요? (5.25.)
-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험이 잡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이번 수요일(22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21-23일간 동원훈련입니다. 급히 연기신청을 했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부족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험이어서 비공식 자체 시험이고, 수험번호나 공문이 따로 없습니다. 관련 이메일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요구하신 서류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반려되었습니다. 불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기해서 다른 날짜에 참석하겠다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에게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분명한 사유가 있음에도 병무청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5.20.)

【주요 언론 보도】

“예비군 가는데 결석 처리?... 서울대 '예비군 불이익' 논란

일렉 2024-05-24 09:05



국민일보(24.5.24.)

예비군 훈련에 보충수업 의무화...교수도, 학생도 불만 왜

중앙일보 | 일렉 2024.05.23 05:00 업데이트 2024.05.23 08:59

이영근 기자 박종서 기자

구독



중앙일보(24.5.23.)

알림판

1. 민원예보(수시예보) 발령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특정 민원이 급증하는 경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수시예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2024.5월 넷째주에 다수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예보를 발령하니 관계기관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예보(수시예보) 발령 사항 >

관리번호	발령일	예보명	관계기관
2024-01호 (3단계, 심각)	2024.5. 31.	각종 해충 관련 방역 요청	전국 지자체

2.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1AA-2405-0898758	국방부

3.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